

# ‘민주당 바람’ 이나 ‘인물론’ 이나

### 4·15 총선, 이곳이 관심 선거구

#### <6>해남·완도·진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2파전이다.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윤영일(62) 후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65)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지지세를 바탕으로 세를 키워가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 해남·완도·진도가 세계 일류가 되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표밭 갈이에 여념이 없다. 해군 군수사령관·제1함대 사령관 등 군 지휘관을 지내면서 행정능력과 위기관리능력, 조직장악력을 갖췄다는 점을 역설하며 유권자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전남도당 농축수산물유통 특별위원장을 지낸 점을 부각하며 농수축산 분야 등 정책에도 밝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재갑 후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함께 해남·완도·진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해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재창출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검증된 능력, 재선의 힘”이라는 구호 아래 선거구를 누비고 있다. 군 출신의 윤재갑 후보가 소속정당을 강조한다면, 윤영일 후보는 자신의 경력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입문, 감사원 재정경제국장 등 공직 경험과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등 국회 경력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의정활동과 공직경험,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맺은 중앙 인맥을 무기로 ‘속원사업 해결사’를 자처한다. 윤영일 후보는 “중앙부처 인맥이 많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저 윤영일이 행정의 달인, 예산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농어촌 선거구를 두고 있지만 두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은 사뭇 다르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세대별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에 무게를 뒀다면,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도로·철도·항만·교량 등 SOC 확충과 지역발전예 방점을 둔 모습이다.

윤재갑 후보의 공약은 ‘사람이 모이는, 더불어 잘사는 해남·완도·진도 만들기’로 압축된다. 출산·보육 공약으로는 어린이 응급 및 임산부 100원 택시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유모차·어린이·장애인 안전 인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산모들이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산모토포야’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어린이·청소년 관련 공약으로는 어



정당	민주당	민생당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름	윤재갑(65)	윤영일(62)	강상범(49)
학력	경남대 졸업 경영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목포 홍익고등학교 졸업
경력	(현)민주당 전남도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현)제 20대 국회의원 (진)감사원 감사교육원장	(진)진도 농촌지도소 근무 (진)진도 조도면 관초이장
주요 공약	·어린이 응급·임산부 100원 택시 운영 ·친환경 농산물 저장단지 건립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및 고향발전 기부금법 제정 ·농수산물 해외거점 확보	·18세 국민 1인당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비 1억원 지급

### 민주당 윤재갑, 군 출신 행정·조직력 강점

### 민생당 윤영일, 의정활동 경험 재선 노력

### 국가혁명당 강상범도 이색 공약 표심공략

린이·청소년 진로상담센터 운영, 관내 고등학교 특수 언어 교육반 설치, 지역 역사교과서 발간,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을 담았다.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는 청년 및 주거 취약층 임대주택, 재직 청년 나홀로 해외여행 지원, 특수기술학교 신설 등을 제시했고, 여성 공약으로는 여성회관·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다양화, 여성 스포츠 및 취미 동호회 지원 강화를 내걸었다.

중년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년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도 확보, 지역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및 주간간 안심서비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 구축, 공유주택과 지역요양원,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을 약속했다. ▲해남·완도·진도의 호국 항쟁 역사를 알리는 호국관광특구 조성 ▲완도국제 무역항 구축 ▲진도항 국제무역항 조기완공 등 지역발전 공약도 제시했다. 지역별 공약으로는 해남은 관광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고, 대흥사 인근 리조트·호텔 유치,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완도는 구도·신안도 연도교 건설과 완도 특산물 군납 확대,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진도는 조도대교 건설과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 등을 지역 공약으로 정했다.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선거구 군(郡)마다 7개의 공약을 담은 ‘해·완·진 7·7공약’을 내놨다.

해남의 경우 미래농업 메카로 키우고 완도와 진도는 각

각 해양지도사, 문화예술수도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해남은 첨단 무인농기계 보급·첨단농업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육성을 지원한다. 농수산물 수급 조절 거점화 단지를 구축하고, 매일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노린다. 진도의 경우 씨감, 다시래기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힘을 쏟는다. 민속, 예술자원 전승을 위한 양성기관 설립도 공약에 담았다. 진도항 여객터미널, 배후지 개발사업 지원, 조도·진도 연도교 건설에도 적극 나선다.

완도는 해양치유병원 설립 및 해양거주타운 조성, 2021년 4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

농어업 속원사업과 관련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직불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수산 공익형 직불제 도입, 어업 분야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 등 어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남해안철도 해남역 조기 완공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조기 추진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공약했다. 복지·교육 공약에는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으로 상향, 청년 창업농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다자녀 출산시 탕감),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적용 확대(2→4개), 노인요양시설 이용 전액 국가지원 추진 등을 담았다.

이른바 ‘허경영당’으로 불리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강상범(49) 후보도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비 1억원 지급 ▲결혼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급 ▲출산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교도소·헌법재판소·징역제·수능시험 폐지 등 파격 공약을 내놓고 표심을 공략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인공지능·블루이코노미 연구진 구성

### 광주전남연구원 협업시스템 구축 시·도 핵심정책 성과 창출 나서

박재영 신임 광주전남연구원장이 취임 한 달여만에 광주·전남 핵심 정책에 대한 전담 연구와 지역 내 연구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연구원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원은 6일 “최근 연구심의 회의를 열고 광주와 전남의 핵심사업인 인공지능(AI)산업 육성과 블루이코노미 전략 지원을 위해 대규모 연구진을 구성하고 올 한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미래를 책임질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전담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추진 방향, 세부사업 내용, 미래 성과 창출 등을 자문하고 이끌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사·도의 현안들에 대해 각각의 연구원들이 개별 대응해왔으나, 앞으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분야별 대응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 세부정책 발굴 등에서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친환경농산물 가족꾸러미’ 학생 가정에 공급

### 전남도 학교급식 지원 104억 투입

전남도가 6일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지원 사업을 전남도교육청과 협업해 도내 26만여 명의 학생 가정에 공급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라 기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을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으로 대체해 오는 4월까지 한시적으로 104억원을 긴급 투입해 집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초중고교 개학일의 4차례 연기와 선별적 온라인 개학, 기약 없는 오프라인 개학 등으로 학교급식이 4

연구원은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두 핵심과제에 대해 5-8명에 이르는 대규모 연구진을 투입할 방침이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원내 연구진뿐만 아니라 사·도 실무부서와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은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로 경영, 경제, 인문, 사회과학 등의 박사로 구성된 연구원의 인재풀을 감안해 공학, 정보통신, 생물학 등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연구기관과 융·복합을 시도, 사·도 핵심정책에 대해 양적·질적인 향상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박재영 원장은 “연구원장 취임 후 1개월여 동안 조직과 인사 등 원내 현안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혁신작업을 1차 마무리하는 중이다”면서 “우선 광주와 전남의 핵심사업에 대해 연구원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사·도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구정책, 설비정책, 지역상생 등 사·도 현안에 대한 연구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여 일 이상 지속 중단됨에 따른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협의해 마련됐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은 전남도내 어린이집을 비롯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로 구성된 학생 1인당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공급한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분을 제외한 도비와 시군비 보조금만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2만4000원 이내의 꾸러미로 공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에 이지호 임명

전남도는 6일 지역 미술문화 진흥을 이끌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으로 이지호(여·60) 전 대전이음노미술관장을 임명했다.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은 오는 10월 예정인 도립미술관 개관과 동시에 도립미술관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해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지난 2월 공개모집에 들어갔었다.

이 단장은 대전 출신으로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졸업, 프랑스 파리대학 조형예

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전시립미술관장을 비롯 대전이음노미술관장,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했고 광주비엔날레 학술위원, 연세대 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도 활동했다.

이 단장은 이날 임용장을 수여받은 자리에서 “전남도립미술관을 앞으로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이와 함께 전남 미술문화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동체 허브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판세 분석

## 민주 후보 여론조사 앞서지만 민생 후보 현역프리미엄...결과는 안갯 속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바람과 인물론이 맞붙은 양상이다.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의 민주당 윤재갑(65) 후보는 문재인대통령 후보 당시 안보특보를 역임하고, 당내 경선에서 윤광국 후보를 꺾은 이후 당 조직력과 당 지지세를 바탕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민생당 윤영일(62)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답게 ‘예산 전문가·속원사업 해결사’를 자처하며 인물론을 강조하며 재선 고지 정복을 노린다.

일부 언론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다수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역정치권에서는 “선거 당일까지 결과는 예측 불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에 민주당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목표, 순천·광양·곡성·구례 간 선거구와 함께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도 개표 전까지 판세가 안갯속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경우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당 후보가 20~30%p나 앞선다. 격전지가 아니라 이미 안정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돌발 약재 없이 판세를 뒤집는 것은 무

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생당 윤영일 후보 측은 “자체 여론 조사 결과와 바다 민심은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또한 윤영일 후보 측은 “후보가 민주당이나,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재인정부 성공을 염원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라며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범 민주 개혁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시 한번 운영임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